

홍익대학교 총장 축사 말씀

이 면 영

(홍익대학교 총장)



오늘 이렇게 중요한 학회가 우리 홍익대학교에서 개최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이곳을 찾아주신데 대해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거의 모든 문명의 이기가 전기와 관계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전기의 힘이 그처럼 지대한 것이기에 그것을 잘 제어하며 다루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일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고 세분화된데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 일반을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과학의 발전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비인간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가쁘게 진행되는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여 어느 누구도 그 발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각 전문분야에서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학을 인간화하는데 기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국제화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실천적 대응은 바로 모든 분야의 이러한 인간화와 내실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 홍익대학교는 보시다시피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내실있고 알찬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소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곳에서 개최되는 학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 성과와 더불어 우리 홍익대학교가 함께 기억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1월 18일